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물거품”

산업은행, 더 이상 협상 어려워 ... 일정기간 후 재입찰 통해 재매각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계획이 무산돼 재입찰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1월21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협상 문제를 최종 결의해 1월2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매각추진위원회는 “한화가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분할 인수 방안을 제안해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산업은행은 분할인수 방안은 처음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며 특혜 논란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협상 과정이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한화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격을 취소하고 3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매도인 권리를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은행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입찰을 통해 대우조선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제·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1>